

## 권율도원수 제423주년 이치대첩제 봉행

## 2015년도 종사연구위원회개최

“군량확보를 노리고 호남의 관문인 이치재를 침략한 1만의 왜적을 1천5백의 군사로 섬멸한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 승전지”

지난 8월 26일 화요일 10시에 충남 금산군 진산읍 묵산리에 소재한 이치대첩지 권율도원수의 충장사 사당에서 충남 금산군이 주최하고 이치대첩기념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이치대첩(李時大捷) 423주년 기념행사”를 충남도의원, 금산군의원, 금산군 기관단체장, 진산읍관계자와 안동권씨 후손 등과 군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한관 박동철 금산군수, 아현관 김왕수 금산군의회장, 중현관 박찬웅 진산향교 전교, 대축 신정교씨, 집례 김성렬씨, 알자 한명구씨 등에 의해 제례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제례는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에 이어 음복례와 망요례가 끝난 후 권문(權門)은 탄공공 권호준회장, 총장공 권영범회장, 참의공 권박원회장, 금산중흥회 권경환회장 등과 지역기관장 군부대 장병순으로 헌화 분향이 진행되었다.

제례가 끝난 후 사회자 김성일씨는 경과보고에서 이치대첩비는 1886년 금성면 상가리에 세워졌는데 일제가 폭파하여 1963년 진산면 거주모임인 흥산사에서 임야 1ha에 권율장군 후손과 금산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오대산 자락 복지골 명당자리인 현위치에 재건되었다. 이치대첩비는 1984년 5월 7일 충남 도문화재 자료 제25호로 지정되었고, 이치대첩비의 산하 토지와 사당 등은 2000년 9월 20일 충남도 문화재 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어서 박동철 금산군수는 인사말에서 이치대첩은 광주목사 권율공께서 호남으로 쳐들어오는 왜군을 격멸코자 이곳에 진을 치고 장병들을 돌려, 필사의 정신으로 왜적을 격퇴시킨 최초의 승전지로서 이치대첩의 역사적 고증을 거쳐 국가 사적비로 지정을 받아 이 지역 금산을 성역화(聖域化)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 군 의회의장의 인사가 있었다.

부대행사로, 금산문화예술교육원에서 모듬북 공연이 흥을 돋우었고, 이어 1970년대 장병의 조총발사가 있었다.

이치대첩은 1592년 임진왜란 왜군이 조선반도를 쳐들어오자 선조대왕이 권율장군을 광주목사에 임명하고 호남지역을 사수토록 하였다. 권율장군은 정충신을 발탁하여 진안의 용치에서 왜적을 패퇴시켰으며, 1천명의 의병을 모집하고 관병을 합하여 1,500명을 이끌고, 고바야가와 다카카케(小市川隆景)가 이끄는 왜군 1만여명이 침략할 지점인 배터재-금산과 전주로 가기



△이치대첩제 전경



△초한관 박동철 금산군수 헌화

위한 유일한 통로로 해발 350미터 경사 70도의 좁은 고갯길에 권율장군은 군사를 정비하고 군사훈련을 독려했으며, 좁고 험한 고갯길 양편에 진지를 구축하고 목책과 녹채(대나무를 세우 사슴 뿔처럼 만든 울)과 여장(성위에 낮게 쌓은 탑)등을 설치하고 “오늘의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으며, 죽 음만 있을 뿐 삶은 없다.”라고 결연



△이치대첩서



△이치대첩 승전보고를 위하여 정충신이 입었던 군복과 지승양대

하게 명령하였다. 이치전투는 황진장군을 선봉장으로 이 아침에 전투가 시작되어 성채 안에 들어오기까지 치열한 전투와 육박전을 감행하여 오후 3시경에 적을 물리쳤다.

적은 5시에 재공격이 있었으나 다시 격퇴하였고, 권율장군의 명령에 따라 미리 영정곡에 기병장 권승경부대를 매복시켰던 우리 병사들에 의해 패주하는 왜군이 거의 전멸됨으로써 1,500명의 병사로 1만 여명의 왜군 주력부대를 무찔러 호남의 곡창을 사수하였다.

### 이치전투 승첩서

아래는 권율장군이 선조에게 상신한 문이다.

「하늘이 비색한 운을 내려 국가가 불행한 때를 만나 관문과 요새를 지키지 못하고, 한사람도 성을 보호하지 못하여 경기지방과 호남지방을 보전하지 못하고 흉작의 소굴이 되었나이다. 전국이 곳곳마다 유린되고 우리의 모든 군사는 어디서나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호남은 국가 보위의 근본이며 왕실의 발상지입니다. 성상(聖

上)께서 남쪽을 염려하시어 광주목사를 신에게 제수하였습니다. 신의 천한 발사취가 서쪽에 이르러 현신할 것을 다짐하고, 부임하는 날 광주사람 중에서 단지 오백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이에 단(檀)에 올라 약속을 맹세하고 용만(龍灣의주)을 향하여 통곡하니 눈물이 흘러 냇물이 됩니



△이치대첩비각



△권씨문중의 분향

다. 왜적은 금산을 침범하여 권율을 죽이고 의병은 진산에 이르러 조현이 죽었습니다. 왜장 소한천을 경은 수만 명을 이끌고 정탐하여 승영구가 거느린 칠백 용사가 전멸하였는데 이때에 저희는 진영에 앉아서 의리만 내세우고 왜적을 규탄하며 탄식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리한 군졸은 용기를 내어 말머리를 남으로 돌려 눈물을 머금고 도내의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고 막을 만나 죽도록 싸웠습니다.

황진은 그 용맹함이 능히 군을 통솔하여 선봉이 되고 권승경은 울분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기병을 인솔하기로 자원하고, 이치에서 적을 만나 죽도록 싸웠습니다. 이때 병졸은 천병이오나 의로써 북을 울리니, 적은 만명이 넘어 용맹함을 믿고 돌진하여 왔으나 묘사에서 유시까지 세 번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선봉 황진이 탄환을 맞고 물러서자 신(臣)이 돌진하고, 병사들도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백명을 당해내니 적은 패하여 퇴각하였는데 열명 중 한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으며 적의 시체

는 80리까지 쓰러져 있었으나 우리 군사의 죽은 자는 11명뿐이었습니다.

기병은 요충지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적장의 머리를 베어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번엔 조그마한 승리를 했다는 것이 어찌 신의 공이라 하겠습니까. 진실로 우연한 것이며 성상의 영험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호남에서 진을 치면서 적을 새재(鳥嶺)에서 억제하지 못한 죄 더러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디만 서쪽을 우러러 바라보며 용만의 말고삐를 잡지 못하니 마음이 아파 씩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적을 섬멸하고 어찌 침서로 소식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는 성상께서 호남을 염려하시는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저의 작은 충성일 뿐입니다.

첩서를 바치는 것이 본의가 아니옵고 모든 사람들의 재촉과 또한 속히 전달하라는 감사(순찰사)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치전투의 승첩의 첩서를 전달한 정충신은 왜군에게 들켜지 않으려 첩서를 여러 조각으로 으려내어 벗짚을 섞어서 새끼를 꼬아 망태기를 만들어 등에 짊어지고 가는 묘안을 짰다. 그리고 생 옷나무 주진 얼골과 몸에 발라 보기 흉한 모습을 만들었다.

헌누더기 옷에 칼을 꽂아 숨긴 지팡이 하나를 들고서 짚신 여러 켤레를 망태기에 달아메고 나서니 영락없는 거지 행색이었다. 이렇게 해서 의주까지 무사히 장계를 전달하게 되었다.

의주에 도착한 정충신은 먼저 병조판서 이항복을 만나 권율의 편지를 전달하며 장인의 근황과 전라도 전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치 승첩의 첩서를 전달했다.

정충신의 지혜와 재주를 알아본 이항복은 그를 곁에 두고 사서(史書)를 가르쳐서 그해 가을 행재소에서 치른 무과시험에 합격시키고 아들처럼 아꼈다.

적중에서 조선의 3대 승첩을 말하는데 이치의 승리를 첫째로 쳤다. ‘연려실기술’에서 말하기를 “이 승리가 없었다면 왜적은 반드시 호남 전체를 유린하였을 것이다.”고 ‘연려실기술’에 기록되었다.

(권경일기자)

지난 9월 16일 안동권씨대종원은 서울 충무로 대립정에서 종사연구위원 6인과 정조공파회장 등 10인이 참석하여 오전 11:20부터 오후 1:10까지 장장 2시간에 걸쳐 권문의 현조에 관한 연구발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장소가 제한되어 충분한 토의를 못하여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날 회합의 성과는 앞으로 종사연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 되었다.

권중달 위원장(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에서 중국의 자치통감을 연구하면서 삼국사기 등 한국의 역사 서술이 너무나도 빈약함을 느끼고 우리 권문도 시조님을 비롯하여 선현들의 자료가 많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문헌을 찾아 고증하여 위원회의 작품을 만들어 내자고 하였다.

회의 주제는 ① KBS역사 스페셜에 대한 금나라 ② 소원록 ③ 권정평 묘지명 등으로서 권경석 사무총장은 KBS역사 스페셜에 대한 금나라를 DVD로 만들어 참고로 위원들에게 배부하였다.

### 1. 금나라와 태사공 후예설

종보 482호 3면에 게재된 해설에서 권태현 위원이 정리한 금나라 시조 합보가 신라에서 북으로 이주한 것은 확실하지만 태사공의 후예설은 고증할 자료가 빈약하여 앞으로 추가 발굴이 있기 바란다는 결론을 내렸다.

### 2. 소원록과 시조 태사공 배위

종보 483호 3면에 게재된 소원록 말미에 시조 태사공의 배위가 신라왕족 밀성박씨 라고 확산부원권 친필가첩에 있다고 하는데 이점도 종사연구위원회에서 친필가첩을 입수하여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결론 맺었다.

### 3. 일재선생 실기 사촌회도(四寸繪圖)

또 권태현 위원이 제시하는 일재선생 실기에 사촌회도(四寸繪圖)는 14세기 후반 양대에 걸쳐 운영된 권문의 사촌회는 당시 친족개념을 미루어 종친회의 효시로 믿어진다. 일재선생은 북아공파조의 장증손으로 휘는 한공(漢功) 시호는 문탄(文坦)이고 도첩의 정승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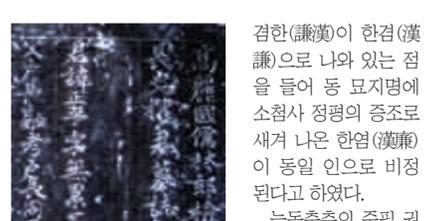
### 4. 권정평(權正平) 묘지명



토의 의제로 부친, 고려 초중기 권정평 묘지명에 대하여 정조공파 권인담회장이 설명하였는데 2012년 능동춘추에 처음 게재되고 정조공파에서 안동에서 토의한 내용을 안동권씨정보 464호(2014.2월호)에 게재한바 있는데 최종적으로 종사연구위원회에 부쳤

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주택공사 박물관에 소장된 권정평 묘지명은(2012.5) 재질이 금구명 종명(金龜銘 鐘銘)으로서 크기는 60.6cm x 36.5cm x 2cm로 연대는 고려 선종2년-의종14년이고 입수경위는 경기도 장단 북쪽 천화사 동쪽산에서 근년에 도굴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이고 국보의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정조공파는 2013.11.20. 간담회를 가졌는데 권영목씨는 정평공이 정조공파의 선대임이 확실하고 정조공의 6대조인 호장동정(戶長同正)



겸한(謙漢)이 한겸(漢謙)으로 나와 있는 점을 들어 동 묘지명에 소첩사 정평의 증조로 새겨 나온 한염(漢廉)이 동일 인물로 비정된다고 하였다.

능동춘추의 주필 권오훈씨는 아들 호장정조(戶長正朝) 위공(位融)이 묘지명에서 정평(正平)의 조부로 나오는 용(融)과 동일한 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정평의 아버지 경(景)을 위공(位融)의 지차남으로 계대하여 소첩사 정평(少誓事 正平)을 시조의 7세손으로 비정함 이 사료된다고 하였다.

참고로 정조공파의 선대 계대는 4세 겸한(謙漢) 5세 위공(位融) 6세 안평(安玄) 7세 혁(奕) 8세 입평(立平) 9세 단정(端正) 10세 대의(大宜) 正朝公으로 현재 족보에 등재되어 있다.

정평 묘지명에서는 4세 한렴(漢廉) 5세 용(融) 6세 경(景) 7세 정평(正平)이니 소첩사 정평은 정조공 휘 대의(大宜)의 증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조공파에서는 8세 입평(立平)의 아들이 단정(端正)과 의정(宜正)으로 의정은 호장공의 선대이니 이 문제를 호장공파와 상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종사연구위원회에서는 묘지명에 근거하여 고증이 힘을 확인하고 정조공파에서 심도있게 계대를 정립하여 종무위원회에 부칠 것을 권장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한 후 대종원과 정조공파에서 참석자에게 각각 선물을 증정한 후 산회하였다.

(편집인 권경석)

**安東權氏宗報** | 종사: 승조이념합합·애족상상귀후학계도기여·사회유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웅

발행주소: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02585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18 (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처: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혁세, 권승세, 권오운
기 자	권영건, 권학세, 권경일, 권범준
자문위원	권중달, 권인호, 권영한, 권영섭, 권오성, 권태현

예금주 및 계좌번호: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076-02-247343

증보사(개인독자) 우체국: 증보사 010108-01-000369

## 始祖 太師公·郎中公 秋享祭 案内

太師公.郎中公 秋享祭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追遠報本の精誠으로 많이 參祀바랍니다.

- 日 時: 2015년 11월 7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 場 所: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 大 堂 會: 2015년 11월 6일(금) 오후7시
- ※ 버스대절해 오시는 문중은 안동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 연락처: 02-2695-2483/4(대종원사무소) / 054-854-2256(안동사무소) / 010-3504-2083 오의 총무부장

2015년 10월 1일  
安東權氏大宗院總裁 權正達

## 통일나눔펀드 가입 회원모집

조선일보에 매일 게재되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나눔펀드에 안동권씨대종원에서 동참하고자 합니다. 안동권문 족친께서는 통일을 기원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한민족의 번영을 기약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통일나눔펀드에 가입하시기 권장합니다.

-아 래-

- 가입방법: 매달 2만원씩 12개월 납입, 1회 24만원 일시 납입 중 택일  
※ 매월 납입 약정시는 12개월 의무 이행해야 합니다.  
납입하실 분은 지역, 소속, 직책, 성명, 금액,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대종원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고 기탁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탁처: 통일나눔재단 ※ 기탁하면 조선일보에 일괄 광고로 나옵니다.  
단체명: 안동권씨대종원 단체 아래 기탁자 성명 기록(금액은 기록하지 않음)
- 입금계좌 번호 및 예금주: 국민은행: 033237-04-00690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317-0009-6063-91 안동권씨대종원